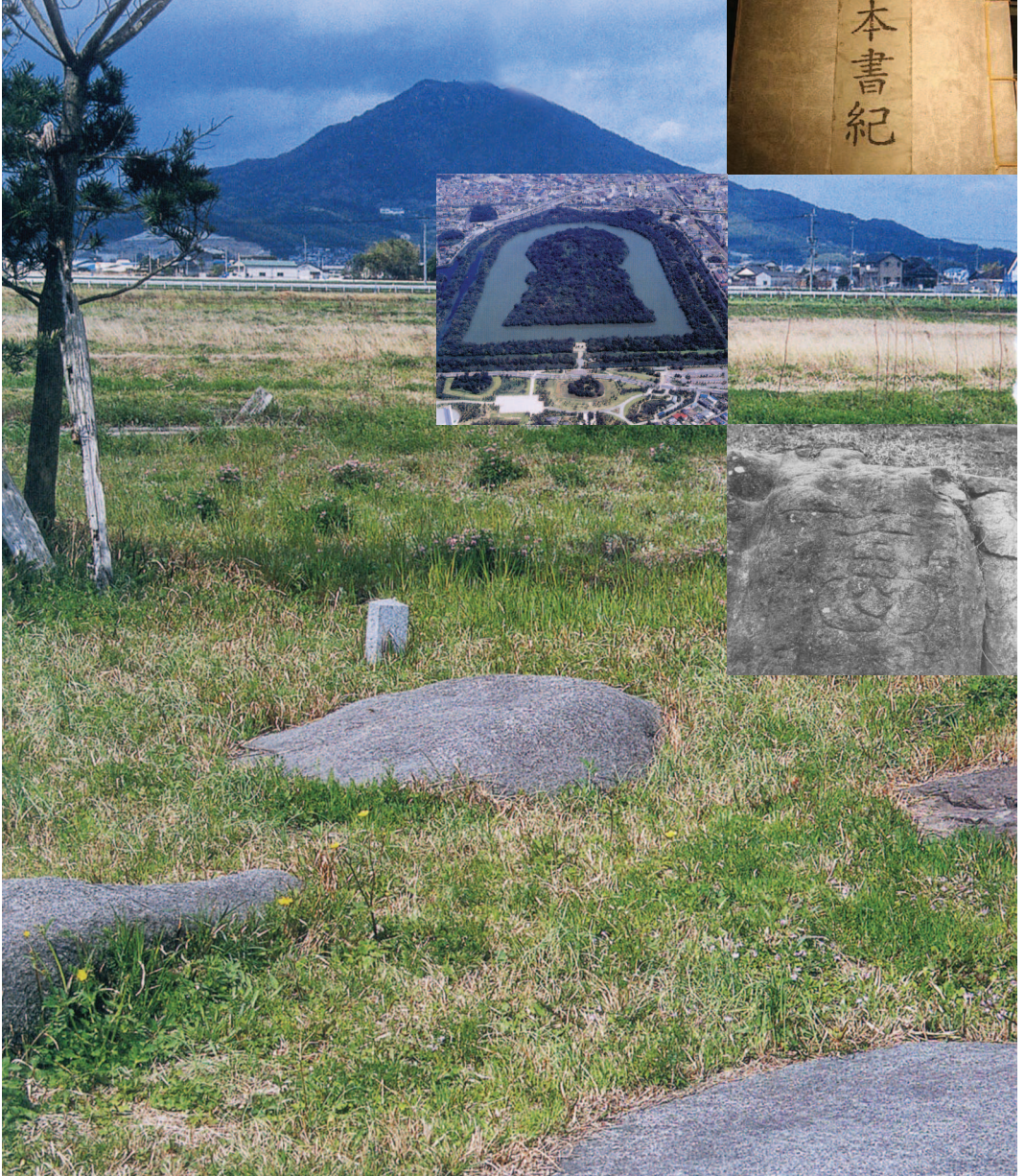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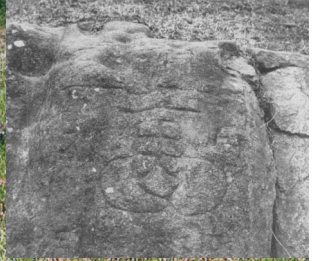


제2장 한반도와 큐슈



제2장 한반도와 큐슈

1. 해류와 조류가 항해를 결정한다

* (1) 과거의 실상 복원은 문헌기록에만 의존할 수 없다. 특히 상고사는 실재 시기보다 몇 백 년 뒤에 기록되었거나 나라 밖 기록이 원용되기 때문에 그 기록의 사실성이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고고학은 기록의 사실성 검증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록의 부족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특히 왕인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일본 측 기록은 국내 기록이 없으므로 구전과 전설을 기본으로 그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시대 상황의 검토는 선박기술과 항해술, 그리고 고고학적 성과가 잘 검토되어야 한다.

필자는 특히 상고문화는 바다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믿는 터이므로 이 점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문화의 일본 이동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본 민속학의 대부로 인정받는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 1875~1962)는 『해상의 길(海上の道)』란 책에서 일본인의 선조는 흑조해류(黑潮海流)를 타고 남쪽에서 오키나와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먼 옛날 인류의 전파를 전제한 것이고, 그 후대의 민족학자라 할 예가미 나미오(江上波夫, 1906~) 같은 이는 일본기마민족설(日本騎馬民族説)을 주장해 북방기마 민족이 일본열도를 정복해 일본 고대국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학계도 물론 한반도 고대문화는 북쪽

에서 남하했다는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그 가능성을 여러 곳에서 실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 일부 학자들은 남방문화의 유입설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산강유역 문화 현상은 이 같은 주장과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노르웨이 고고학자 『헤어달』이 해류에 의한 남태평양문화 이동을 뗏목 시험에 의해 증명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흑조(黑潮)에 의한 남방문화의 한반도 유입도 설명할 수가 있다.

실제로 산림이 울창하고 맹수가 들끓던 시절 문화 이동은 해류에 의한 문화 이동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시 선박 건조술이나 항해술은 미개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표류 항법이나 조풍(潮風) 항법이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연안 항해는 물이 들고 쓰는 조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조류의 영향이 적은 원양은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로 갈수록 한·일 교류나 한·중 교류는 이 같은 자연현상이 크게 작용했었다.

유물로 보아 BC 770년부터 BC 221년까지의 춘추전국시대는 장대와 샛대가 배의 인위적 항해에 이용되었다. 원시시대에는 뗏목이나 통나무배가 수면 이동수단에 이용되었을 것이지만, 샛대가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원시적이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오나라 때(BC 482년) 이미 93명이 탈 수 있는 대익선이 고안되고 전문 노꾼이 있었던 것 같으나 원양항해에는 쓰이지 않았다. 중국 기록에 최초의 원양 기록은 진시황이 불로선약을 구하러 보낸 서복(徐福)으로 BC 210년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서복이 일본의 오사카 어구 와카야마(和歌

山) 구마노우라(熊野浦)에 도착해 살았다고 하여 묘와 사당과 비석을 세워두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전설의 유적을 들어 일본의 문화는 이때부터 직접 일본에 수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터이다. 1990년 12월 일본 사람들은 서북의 고향으로 전하는 강소성(江蘇省) 북쪽 장유현에 1천 명이나 몰려가 서북 동도(徐福 東渡) 2,200주년 기념학술회의를 여는 등 법석을 떨었다.

재미난 것은 서북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제주(濟州) 서귀포와 고흥 봉래도, 전남 구례와 경남 남해도를 건너갔다는 전설이 있고, 두 곳에는 지나갔다는 암각문까지 있다. 근래 삼천포 가까운 늑도에서는 여러 나라와 교역한 흔적이 발굴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서북이 산둥성(山東省) 낭야(瑯琊)에서 출발했다고도 하고, 저 남쪽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에서 출발하여 대산도(岱山島)에 머물러 살았다 해서 봉래도(蓬萊島)란 별칭이 있다고도 한다.

중국 절강성 연안에서 출발했더라도 당시 항해술로는 서북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흑조 해류의 영향 때문에 제주도나 전남 연해안을 거치게 되어 있다. 만일 산둥성 연안에서 출발했다면 더 더욱 전남 연해안을 거치지 않으면 일본에 건너갈 수가 없다. 항해술이 발달하고 발동선이 운항하던 1백여 년 까지도 일본과 중국 항해는 대부분 전남 연해안을 거쳤다.

그러므로 전남 연해안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중국과 일본 왕래의 징검다리 노릇을 하거나 회랑(回廊) 구실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물며 평양이나 개성이나 한성이나 부여 왕조가 일본과 교류했다면 그 때도 전남 서해안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길목이

다. 그러므로 한일관계사를 말할 때 그 길목을 꼭 빼버리고 부여나 일본의 나라(奈良) 또는 큐슈(九州)를 들먹이고 문화현상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은 마치 중·일 교류사에서 한반도를 빼버리고 말하는 짓이나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항해술이란 섬이 많고 해안선이 긴 곳에서 발전하고 개발되는 법이다. 중세 유럽의 해상을 장악한 바이킹족도 해안선이 들쭉날쭉하고 섬이 많은 스칸디나비아반도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항해술도 섬이 많은 산둥성 북쪽 봉래 사람들과 남쪽의 절강성 주산열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켰다.

마찬가지로 전남 연해안 사람들은 섬과 섬을 건너다녀야 했고, 섬 때문에 물길이 험해지는 곳도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항해술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 장군이 전남 해역에서 일본 왜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숙명적으로 타고난 전라도 남해 연안의 배질 기술 덕이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전남 사람들의 기능은 여러 번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보고시대에 완도 청해진이 개설된 것이나, 제주의 왕래가 전남 남해안에 집중된 것, 통일신라시대에 중국 왕래가 주로 영산강변과 영암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백제나 마한의 배질은 영산강유역과 전남 남해 연안 사람들이 맡았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배질이 국제간의 교류 수단이었을 시대의 선진문화 창구는 왕도(王都) 못지않게 그 관문 지대였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남 연해안 특히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영산강변은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의 문화선진지대였을 가능

성을 점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추론이 합리성을 인정받는다면 왕인이 마한의 망명 집단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백제문화를 대표해 중국의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기 위해 선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백제 왕조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변방인 영암 구림의 인물을 파견했겠느냐는 회의는 이와 같은 자연관찰의 무지에서 오는 잘못이라 생각한다.

(2) 상고시대 한반도 문화의 전파는 흔히 거리로 가장 가까운 부산이나 김해에서 일본의 큐슈를 거쳐온 것으로 단정한다. 그러나 키와 노 등 항해 기구가 개발되고 조선 기술이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6세기) 이전의 항해는 주로 해류와 조류에 의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북아 해역에서 본격적인 돛대배가 개발된 것은 동한시대(東漢時代, AD25-219)이다. 그 이전의 항해는 바람보다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더 받았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이 한일문화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살펴보기로 하자.

한반도와 가장 가깝다는 일본의 큐슈(九州) 사이에는 대만난류라는 흑조가 북쪽 동해를 향해 흐르고 있는 물목이다. 이 때문에 부산해역의 조류도 강원도 방향을 향해 드나들고 그 중간에 무조점(無潮点)이 있다.

들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달의 인력에 의해 물이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위도와 지형에 따라 그 속력도 다르고 무한정 지구 끝까지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6시간 끌려가다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류의 유속이 다르고 그 영향은 연안

에 미칠 뿐이다.

대마도 해협(對馬海峽)의 해류는 동북쪽을 향해 흐르는데 조류도 같은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해표면의 조류는 계속 동해로 밀리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본 큐슈 북부의 하카다(博多) 해역에서 배를 띄우면 키를 정북쪽으로 잡더라도 동쪽으로 밀려서 중국을 갈 수 없는 해역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뗏목을 띄워 큐슈 북부로 가고자 해도 이즈모(出雲: 현 島根縣 북쪽) 바닷가로 밀리게 되어 있다.

이런 자연법칙 때문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공황후(神功皇后)도 신라를 정벌하러 떠났다는 포구가 큐슈의 서북쪽 사가현(佐賀縣)의 마쓰우라반도(松浦半島) 화이(和珥) 포구였다고 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왜병이 출발한 기지도 같은 마쓰우라반도의 나고야성(名護屋城)이었다.

더구나 돛배가 개발되어 바람에 의지해 항해하기 시작한 뒤로는 봄에는 남서쪽 계절풍, 겨울에는 북서쪽 계절풍마저 받게 되기 때문에, 부산이나 하카다(博多)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를 직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자연법칙은 한반도에서 일본을 항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본 큐슈에서 대마도를 거쳐 부산이나 김해로 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즉 검은 바다라는 뜻으로 현해탄(玄海灘)이라 했던 것이다. 현(玄)이란 검은다는 뜻이고, 검은 것은 웅족(雄族)의 나라로 오는 여울목의 뜻도 있지만, ‘죽음의 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 가장 손쉽게 일본으로 갈 수 있는 해역은 전남의 고흥과 완도였다. 고흥과 완도, 강진에서 출

발하더라도 북서풍을 만나면 큐슈의 북쪽 해안에 배가 닿는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長崎)의 고도열도(五島列島)나 큐슈의 중부인 구마모토(熊本) 해안에 닿았다. 이 때문에 백제 초기의 유물들이 구마모토현(熊本縣)에 집중해 나타나고, 곰족의 이주 본 터란 뜻의 웅본(熊本)이란 지명이 생겨난 것이다. 돛대배가 항해에 이용되기 이전의 한반도 유물이 집중해 있는 큐슈의 후쿠오카(福岡)는 뗏목 시대에 해류에 의지해 항해했기 때문이다.

북부큐슈(北部九州)와 아마쿠치현(山口縣) 시모노세키(下關) 사이 물목으로 배가 자유로운 항해를 시작한 것은 8세기 이후이다. 그 전에는 하카다항(博多港)에 배를 대고 하선(河船)을 타고 내륙으로 다자이후(太宰府)를 거쳐 가스카(春香)에 이른 다음, 도요진(豊津), 도요마에(豊前) 지방을 거쳐 다시 배를 갈아타고 세토나카이(瀬戸内海)를 항해해야 했다. 이 옛길을 따라 한반도 유물들이 널려 있다. 후쿠오카 동북쪽 광산지대 가오라마찌에 있는 향춘사(香春寺) 들목의 빗돌에는 영암 구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구멍(性穴)이 새겨져 있다.

여천 소리도에 가면, 구한말에는 소리도 사람들이 새벽물에 풍선을 타고 일본 고도열도(五島列島)에 가서 품일을 하고 저녁물에 돌아 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일본과 한반도의 생활 물목은 오늘날과 같이 부산과 큐슈 북부의 후쿠오카(福岡)나 시모노세키(下關)가 아니라, 전남의 동쪽 연안과 서부 큐슈(西部九州)였다.

일본 왜구의 본거지가 마쓰우라(松浦)반도 지대였던 것도 이와 같은 자연항해의 이점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자연현상은 근래 해양학자들의 부표 투하시험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실증이다. 이런 자연원리를 모르고 고대 한·일 간 뗏목 항해시험을 하

카다와 경남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은 도면상의 거리 개념의 상식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 혼슈(本州)의 아마쿠치현(山口縣)이나 시마네현(島根縣) 해역에는 부산과 포항 일대의 쓰레기가 떠밀리고 있고, 큐슈 서쪽 나가사키현(長崎縣) 해역에는 한국의 전남과 제주의 쓰레기가 떠밀려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쓰레기의 표류는 고대 한반도 문화의 이동과 맥을 같이 한다. 백제의 문물은 전남 사람들의 배질에 의해 일본에 전달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고시대 항해에 능숙한 솜씨를 보인 사람들은 섬이 많아 항해가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북유럽 바이킹족이나 중국 주산도(舟山島) 주변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서부 큐슈 고도열도(五島列島) 일대와 마쓰우라(松浦) 왜구가 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재삼 강조해 둔다.

2. 표류와 고대 영암지역

* 광주여자대학교 정성일(鄭成一) 교수는 『사학연구(史學研究)』 제72호(2003년)에 「전라도 주민의 일본열도 표류기록 분석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란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이후 한일병탈이 일어난 1910년까지의 320년 동안 한·일간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해난사고에 의한 두 지역의 표류사건을 통계수치로 제시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표류에 대한 정리는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현 나고야대학 교수)에 의해 이뤄졌는데, 1872년까지에 그쳐 있던 것을 정성일 교수가 그 뒤 22년 간 자료들을 보완한 것이다.

이케우치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1599년부터 1872년까지 273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본에 표류한 사람은 9,770명이다. 그 중 경상도만 521건으로 50.9%이고 전라도가 388건 3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일본인의 한반도 표류는 91건 295명으로 조선인의 일본 표류에 비해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전라도 사람의 66.7%가 서북 큐슈 지방인 고토(五島)열도와 마쓰우라(松浦) 쪽이었고, 경상도 사람의 86.7%가 대마도(對馬島)와 그 건너 아마구치현(山口縣) 북쪽의 나가토(長門) 지방이었다.

이 같은 지역 간 표류 편중은 해상의 기상과 해류, 조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현상으로 항해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 사람들의 표류 중심 항로를 연상시켜주고 있다.

정성일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1592년 이후 1909년 사이 전

라도 사람들의 일본 표류는 모두 743건 8,771명에 달했으며, 전라도 사람 중 영산강유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표류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총 743건의 전라도 사람 표류 중 직접적인 영산강유역인 영광(18), 나주(36), 무안(4), 영암(90), 해남(140), 진도(28) 지방의 표류는 316건이었다. 고려 때 영산강의 중심이었던 안남도호부인 영암에 속한 강진(178), 장흥(42)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536건으로 72%에 달한다. 정교수는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했던 제주(53)까지를 전라도 통계에 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전라도 사람들의 일본 표류는 거의 영암, 해남, 강진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900년대 일본 큐슈(九州)의 무나가타군 겐카이초(宗像郡玄海町)에 사는 후루다케(古武謹一)씨 형제는 마을 앞 갯변에서 360점의 부자(浮子)를 주어 모았다. 이를 국가별로 분류했더니 64%인 229개가 한국제였고, 일본제는 23%인 83개 였으며, 중국제는 전체의 2%인 6개에 불과했다(石井忠編(2002), 24쪽).

재미난 것은 6개의 중국제 중 한개는 절강성(浙江省) 제품이었고, 4개는 복건성(福建省)에서 만든 것이었다. 물론 이 가운데 중국제들은 어망 등 고기잡이 연장이었는데, 한국 연안에 출어했다가 떠내려 온 것 일 수 있으므로 사실상 한반도의 쓰레기나 부자가 일본 큐슈(九州) 지방으로 밀린다는 것을 실증해준 셈이다.

2008년 3월 21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한류에서 표류해 오는 김양식장용 염산이나 유기산통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글을 실었다. 2007년 12월부터 3월까지 일본해안에 떠밀려온 20리터짜리 유기산통은 4만개에 달했다. 나가사키(長崎) 연안에

만 7,536개에 달해 가장 많았고 히라도(戶島)섬에는 한달사이에 7백개가 떠밀려왔다. 1999년도에 3만 8천개 가량 떠밀려 온 뒤 점차 줄다가 2007년 겨울에 부쩍 늘어 한국정부에 그 방지를 요청 했다는 것이다.

근래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이토시마(糸島)반도 중심에서 옛날 한반도의 서북 중심인 평안도(平安道) 지방에 있던 낙랑계(樂浪系) 그릇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면서, 히미코(卑彌呼)시대의 대중국 교류를 자랑하고 나섰지만, 낙랑(樂浪)의 유물이 일본의 큐슈지역에 전달되려면 전남 연안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연 지리를 애써 생략하는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3. 영산강유역을 닮은 큐슈(九州)의 옹관묘와 지석묘(支石墓)

* 일본 큐슈지방에는 박물관이나 향토자료관이 여럿 있다. 이곳 박물관에 가장 많이 전시된 것들이 옹관과 구리거울과 토기이다. 옹관 중 가장 큰 것은 높이가 146cm이고 아가리의 직경이 92cm에 달한다. 영암 시종면 내동리 고분에서는 길이 3m, 너비 1m 짜리도 나왔다. 이곳 학자들은 큐슈지방의 옹관은 어린아이를 묻던 소형의 것을 시원으로 서기전 200년께의 야요이시기 전기 유적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는 전남지방 지석묘시대와 같은 시기로 큐슈지방에는 지등지석묘군(志登支石墓群)이 있다

기원 전후 유적이라 할 이토시마(糸島)지역 옹관은 그 크기가 80~120cm에 이르고 둘을 합하고 있어서 전남 시종일대 옹관과 비슷하다.

그런데 후쿠오카시(福岡市) 하카다구(博多區)의 가네고마(金隈)유적에서는 348기, 서구의 이모리(飯盛)유적에서는 1천기 이상, 그리고 치쿠시노시(筑紫野市)유적에서는 1600기가 발견되었으니, 전남지방 옹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두 번째 많은 것이 구리로 만든 거울이다. 이토시마(糸島) 건너 마에바루초(前原町)의 미쿠모(三雲) 고지(小路)유적에서는 한꺼번에 중국제 거울이 55개나 나왔다

중국에서 구리제거울이 유행한 것은 후한(後漢, 25~219) 때이다. 이 거울은 한반도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일본의 중부 긴키(近畿)지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큐슈(九州)와 야마

토(大和) 정권의 중심에 대한 논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 거울은 창날(矛)과 방울 종(鐸)을 동반해 제사용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큐슈(九州)의 청동제거울은 초기에 한반도산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이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중국제가 들어오고, 후기에 오면 일본에서 직접 생산했는지 여러 곳에서 거푸집들이 발굴되고 있다.

일본열도에서는 수천 개의 청동 거울이 발굴되고 있지만 제일 큰 거울은 마에바루시(前原市) 히라바루(平原) 1호묘에서 발굴된 것으로 지름이 46.5cm이고 무게가 8kg에 달한다.

이 무덤에서는 한꺼번에 42개의 거울이 나온 것도 유명하지만, 이 유적에 가까운 미쿠모(三雲) 고지미나미(小路南)유적에서는 57개의 거울이 발굴되어 이 시대 큐슈(九州)를 ‘거울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무당여왕 히미코(卑彌乎)시대의 흔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거울이나 칼, 방울 등을 신기(神器)라 하고 제사 때 쓰는 기구라는 생각을 하면, 이 또한 영산강유역의 마한(馬韓) 풍습 천군(天君)제나 소도를 생각하게 한다.

더욱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유적은 신총(神籠)이라 이르는 일본의 유적들이다. ‘고우코이시’라 부르는 이 신총석(神籠石)은 표고가 100미터에서 300미터 가량의 산기슭에 성곽처럼 돌이 열지어 있어서 산성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성은 백제가 망하고 쌓은 대야성(大野城)과 같은 성질의 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것이 마한(馬韓)의 천군(天君) 소도와 같고 고정암좌(高庭岩座)의 신성한 구역인 것이다. 일본에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 신총석(神籠石) 산성이 후쿠오카(福岡)에만 6개, 사가(佐賀)에 2개, 야

마구치현(山口縣)에 1개가 있다.

더욱 주목을 끄는 풍습은 큐슈 남부 미야자키현 다카치호지방에 전해오는 가구라(神樂)라는 가무악극이다. 이 가구라는 마한의 소도처럼 신이 사는 제사터



▲일본의 가구라의 한 장면

로 11월부터 2월 사이에 야마부시(山伏)라 부르는 산에 사는 수행자들이 동네사람들을 위해 밤 세워가며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이다. 다카치호는 일본 개국신이 내려왔던 신화의 땅으로 천군(天君)의 신성한 제사터이기도 하다. 이는 한반도 마한 소도풍습의 영향을 받은 신충(神寵)의 잔존 풍습일 수도 있다.

큐슈지방에는 전남 지방에 많은 고인돌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지석묘에서는 무문토기와 벼를 재배했던 돌연장들이 발굴되고 있어서 농경문화와 연관 짓는 유물이



▲큐슈 마에바루시의 지석묘

다. 역시 일본에서도 농경기술의 도입으로 큰 변혁을 일으켰던 흔적으로 지석묘를 들고 있는데, 큰 지석묘는 상석(上石)의 크기가 1.5~2m, 두께 50cm, 무게 5톤짜리가 이토시마(糸島)반도



의 지등(志登) 5정목 86번지에 있고 그 수가 10기(基)에 이른다.

큐슈(九州)지역의 지석묘는 이시자키의 구비(石崎の曲)에도 있고 옹관묘와 함께 있으나 마제석기들이 발굴되어 후쿠오카 중심의 이타즈케(板付)유적보다 앞선 벼 재배지로 보고 있다. 물론 지석묘는 마에바루시(前原市) 니쵸쵸(二丈町)에도 4기가 옹관묘와 더불어 있다.

이도국(伊都國)역사박물관에서 멀지않은 이다(井田)의 삼사신사(三社神社)에도 2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 고인돌은 본디 600m 가량 동쪽의 논에 있던 것으로 상석이 3.5537cm로 일본국내 최대라고 설명문이 붙어 있다.

이 지석묘에서 벽옥 제 · 관옥 22개가 나와 야요이 시대 전기 것이며 조선반도의 것과 비슷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 지석묘 곁에도 옹관묘 9기가 같이 있었다 한다.



▲지석묘를 답사하는 김정호 연구위원

재미난 것은 이 지석묘의 상판석에 영암 구림리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구멍(性穴)이 있었다. 이 알구멍은 후쿠오카 동쪽의 향춘사(香春寺) 경내에도 있다.

전남지방에 4만여기의 지석묘가 집중해 있는 것에 견준다면, 일본 큐슈지방 지석묘는 전남지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점에서 옹관묘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4. 마한(馬韓)과 이도국(伊都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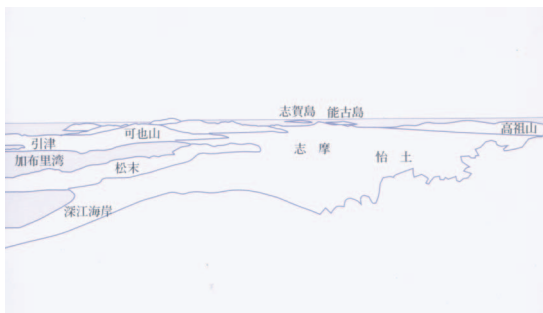
1) 현해탄을 향한 용머리 이토시마(糸島)

* 큐슈(九州)의 동북부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 서남쪽 사가현(佐賀縣) 서북부 히라토시마(平戸島)에 이르는 현해탄(玄海灘)의 중간 목에 이토시마반도(糸島半島)가 있고, 이곳에서 히라토시마(平戸島) 중간 목에 히가시마쓰우라반도(東松浦半島)가 있다.

이토시마(糸島)반도에서 한국의 거제도(巨濟島) 방향인 서북쪽에 일기도(壹岐島)와 대마도(對馬島)가 자리하고 있어서 옛날 북부



▲이토시마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큐슈의 중심이라 할 하카다(博多)를 가는 데는 가장 지름길 길목이라 할 수 있다,

옛날 이 반도는 이토시마(糸島)라는 섬으로 이도(伊都) 중심이었던 마에바루시(前原市) 쪽과 폭 1km 가량의 해협으로 갈려 있었던 지형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사이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지금은 그 흔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섬은 이토시마군(糸島郡)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나, 1896년 행정개편 때 건너편에 있던 이토군(怡土郡)과 합해 4개 촌(村)으로 갈렸다가 다시 1955년 같은 발음의 시마정(志摩町)으로 합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섬의 동쪽은 후쿠오카시(福岡市) 서구(西區)에 흡수되었고 그 경계에 큐슈대학(九州大學)의 새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다.

이토시마(糸島)의 중심산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의 인연을 웅변하듯 가야산(可也山, 365m)이라 부르고 ‘작은 후지산’이란 별칭이 있다.

이곳 건너에 한국말인 ‘서울’에서 비롯했다는 세부리산(脊振山 1,055m)이 있고, 후쿠오카 사와라구(早良區)와 마에바루시(前原市)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일대가 옛날의 이도국(伊都國) 영역이다. 「일본속의 한국 문화」를 연재한 재일교포 김달수(金達壽)씨는 일본말 바루(原)는 한국말 ‘부루’ (부리 · 마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바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에바루(前原)는 이토섬의 앞마을이 되는 셈이다.

이 일대야말로 일본의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본 바탕이다. 일본 『고사기』에는 일본의 황손(皇孫)이 히무카(日向)의 다가치호노미네(高千穂峯)에 강임하여 세 아들을 낳아 일본을 열었다는 천손(天孫) 강임 신화가 적혀 있다.

일본 사람들은 천손 강임의 터가 구마모토현(熊本縣)과 미야자키현(宮崎縣)의 경계에 있는 다가치호노미네(1574m)라 하여 이곳을 성역화하고 국정공원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히무카(日向)는 바로 마에바루시(前原市)와 이웃 후쿠오카시(福岡市) 서구(西區) 사이에도 있다. 이토시마군(糸島郡) 시마정(志摩町)에 사는 사진작가 마쓰오(松尾紘一郎)씨는 2005년 「가야에서 왜국으로(伽野から倭國へ)」(96쪽)란 책을 내면서 천손(天孫) 강임의 땅이나 『일본서기』에 나오는 「아침해가 솟는 나라 저녁해가 지는 나라」의 땅은 바로 세부리산지(脊振山地)에 있는 히무카(日向岬)이고 옛 일본 사람들이 바다 건너 북쪽의 가야(伽倻) 땅을 가리킨 옛 터라는 주장을 폈다.



▲이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산강 유역의 유물들

『일본서기』에도 ‘치쿠시노 히무카노 쿠시후루다케(筑紫の日向のクシフルタケ)’라 하였는 바, 이 고개 북쪽 기슭산, 고조산(高祖山, 416m)의 남쪽 산봉우리를 구지후루(クシフル) 고개(峙)라 이르고, 이 또한 가야(伽倻) 김수로왕의 탄생설화 구지봉(龜旨峰)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설은 오사카(大阪)대학장을 지낸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1927~)씨의 「일본신화(日本神話)」란 책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마쓰오씨가 태어나 자란 이토시마반도(糸島半島)는 「화명초(花名抄)」란 책에 가라고(韓良鄉, ガラ)로 나오고, 다자이후(太宰府)의 「관세음사자재장(觀世音寺資材帳)」에는 가야고(伽倻郷)라 했다고 밝히고 가라도마리(唐泊)란 곳도 본디 옛 이름은 가라고(韓良郷)라 했다고 했다.

이런 점을 들어 이곳 출신 가사마사오(笠政雄)씨는 이곳은 조선 민족의 점령지였거나 식민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대변하듯 이곳 일대에는 야요이(弥生)문화유적과 고분(古墳)유적이 널려 있다. 이 일대에서 일본의 고대 문화가 자라나기 시작해 점차 동쪽으로 옮겨 갔다는 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다.

후쿠오카대학(福岡大學) 다케스에(武末純一) 교수는 「일본 출토 영산강유역 관련 고고학 자료의 성격」이란 글에서 일본 초기사회에 큰 변혁을 준 북부큐슈지방의 벼 재배기술 유입 등 야요이 문화에 압도적 영향을 준 것은 한반도이고, 이때부터 한반도의 남부 와도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져왔다고 유물의 실례를 들고 있다.

특히 고분시대(古墳時代)에 접어들면서 더욱 직접적인 교섭이 시작되고 니시진마치(西新町) 유적에서는 영산강유역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터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왕인박사가 일본에 건너갔다는 고분시대의 중기 전반에는 일본 열도 곳곳에 영산강유역의 특색 있는 유물들이 한반도 다른 지역의 유물들보다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보인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 보기로 북부큐슈지대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굴되어 온 조족무늬토기를 들고 있다. 물론 그는 이 시대에 영산강 지역에도 북부큐슈계의 유물이 보이고 있다고 보기를 들면서, 4세기 무렵 두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했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전남대 임영진(林永珍) 교수는 옛 사람들의 생활양식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 묘제(墓制)라는 것을 전제로 그 동안 무덤양식과 분주토기(墳周土器)에 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해 온 바 있다.

그는 『고문화(古文化)』67호(2006.6)에 투고한 「분주토기를 통해 본 5~6세기 한일관계의 일면」에서 한반도 서남부의 중심인 영산강유역 나주 반남 일대의 중형고분에 항아리 형태(壺形) 분주토기가 많고, 일본에 많은 전방후원분 형태의 장고분(長鼓墳)에 보이는 통(筒) 형태의 무덤 주변 장엄구 토기는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임 교수는 3세기 후엽 충청도 아산만권에 있던 마한세력이 백제세력의 남하에 따라 일본에 건너가기 시작하고 4세기 중반에는 충청내륙지방과 전북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다가 5세기는 전남 서부 사람들이 옮겨가고 5세기 중엽 이들 망명이 끝났던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 동안 고대 한·일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가야권(伽耶圈)과 백제권(百濟圈)으로 구분해 일본의 야요이(彌生)시대에는 가야권(伽耶圈)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상호 교류도 있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근래 고고학적 발굴성과들이 축적되면서 같은 백제권역(百濟圈域)이라 하더라도 그 남부에 속한 전라도나 영산강유역은 5세기까지도 백제 중심과 다른 문화를 독자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주장이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던 영산강유역의 당시 유물도 조족문토기, 양귀항아리, 이중구연항아리, 적갈색연질토기, 거치문토기, 평저광구단지등이 보기로 내놓은 그릇들이다. 이 그릇들은 3~4세기 북부 큐슈지방에서 주로 발굴되다가 5세기 무렵에는 북부 큐슈는 물론 일본 중앙부인 긴키(近畿)지방에까지 널리 확대되고 있다(白井克也, 2001). 백제토기들은 이 시기가 지나고 5세기 후엽에야 비로소 야마토(大和)정권의 중심지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 같은 유물 분포를 중심으로 임영진 교수는 영산강유역의 마한(馬韓) 세력이 백제의 남하 압박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일본 큐슈(九州)에 도착한 세력들이 일본 중앙부 긴키(近畿)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세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일부 망명객들이 연고 깊은 영산강유역으로 돌아와 왜계(倭系)에 가까운 장고분(長鼓墳) 등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와 달리 백제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한 토착민들의 자구책으로 일찍이 일본에 건너간 이주민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화현상이라는 견해도 있고 백제(百濟) 중앙 정부가 왜계(倭系) 용병이나 관료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 또한 없지 않다.

무덤에 장식한 토기(일본에서는 하니와(埴輪)라 한다)는 일본에서는 기비(吉備)지방의 야요이시절 유적에서 그 원시형이 나타났고, 일본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한반도에서 나타난 5~6세기 유물보다는 앞선다. 그렇더라도 토기의 형식은 두 지역이 서로 본받은 흔적이 많다.

이 좋은 고고학적 자료로 미루어 보면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는 왕인(王仁)이 영산강유역의 영암 출생으로 일본에

전너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되는 셈이다.

2) 마한(馬韓)이란 나라 풍습과 일본

일본이나 한반도는 스스로 써 둔 역사책이 늦어서 옛 역사는 주로 중국 역사기록에 의존한다.

한반도의 사정은 한(漢)나라(BC 206~AD24) 때 역사책과 후한(後漢) 때(25~39) 역사책 등에 나오고, 마한(馬韓) 얘기는 후한서(後漢書)가 처음이다 물론 왜(倭)도 후한서(後漢書)에 처음 나온다.

“마한(馬韓)은 북쪽은 낙랑, 남쪽은 왜(倭)와 연접한 서쪽 나라로 54국이다. 삼한(三韓)은 모두 옛 진국(辰國)이라 마한(馬韓) 중에서 진왕(辰王)을 뽑고 도읍은 월지국(月支國)에 두었다.

왜(倭)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백 여 국에 달하는데 가장 큰 나라가 야마다이(耶馬台)이다.”

중국 땅의 후한(後漢, 25~219)이란 나라는 서기 전 206년에 유방(劉邦)이 세운 한(漢)나라를 왕망(王莽)이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새 황제가 되는 바람에 망하고, 다시 15년 만에 유수(劉秀)가 한(漢)나라를 복구하니 이때부터를 후한(後漢)이라 한다. 이 나라는 서기 25년부터 219년까지 중국 땅을 통치하다가 촉(蜀)·위(魏)·오(吳)의 삼국이 일어나면서 망했다. 이때의 역사를 송(宋)나라 때 범엽(范曄, 398~445)이 쓴 것을 양(梁)나라 유소(劉昭)

가 보충해 완성했다.

이 책 안에 한반도의 사정을 적은 동이전(東夷傳)이 나오고 마한(馬韓)에 대한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한(韓)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마한(馬韓), 둘째는 진한(辰韓), 셋째는 변한(弁韓)이다. … 그 중에서 마한(馬韓)이 제일 크다. 그 종족 중에서 사람을 뽑아 진왕(辰王)을 월지국(月支國)에 도읍했다. 이 진왕이 삼한(三韓) 땅을 모두 통솔했으니 실상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왕 노릇을 시작하기는 마한(馬韓)이 제일 먼저다.

금이나 은, 보배, 비단 따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나 말을 탈 줄도 모른다. 다만 구슬(珠)만은 소중하게 여겨 이것을 옷에 매달아 장식하기도 하고 목에 달아 내려뜨리기도 한다. 언제나 5월이 되어 밭갈이가 끝나면 귀신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술 마시고 놀면서, 여럿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데, 한 사람이 춤을 추면 수 십 명씩 따라 춤춘다. 10월이 되어 농사일이 끝나면 또 이와 같이 논다.

여러 나라의 고을에서는 각각 한 사람이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장하게 한다. 이 사람을 천군(天君)이라 하고 또 솟대(소도)를 세운다.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거의 같은 내용이 서진(西晉)나라 진수(陳壽, 233~297)가 쓴 「삼국지(三國志)」 동이전 한(韓) 항목에 나온다. 이 책에는 마한의 나라 이름도 나온다. 다만 이 책에서는 마한(馬韓)의 풍습 중에 소도 풍습은 마치 불가에서 절을 세우는 것과 같고, 사방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대목이 덧붙여 있다.

물론 거의 같은 내용이 당(唐)나라 이연수(李延壽, 618~646) 등이 쓴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에도 나온다. 다만 이 책에는 사신을 왕래한 기록이 더 들어 있다.

일본 에도(江戸) 시대의 학자로 『고사통(古事通)』이란 책을 쓴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는 마한(馬韓)의 천군(天君)과 소도(蘇塗)제도를 일본의 상고신화에 견준 글을 써 흥미롭다. 한국의 무당이 요령을 혼드는 것이나 일본의 원주민 에조(隼人)들이 춤출 때 기구가 같다는 것이다.

천신(天神)을 아мага미라고 발음하는 바, 이는 마한(馬韓)의 일본 발음 '마간(まかん)'의 마가 아(阿)로 변한 것으로 일본 『고사기』중의 별천신(別天神 고도아매스가미)나 천어중주(天御中主 아메노미나카누시)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

중국의 신당서(新唐書)는 「첫왕은 아메노미나카누지라 불렀다. 겐렌텐노에 이르는 32대 텐노까지는 모두 미코노(尊)자를 붙여 불렀고, 쓰쿠시성에 살았다. 겐데텐노의 아들 진무가 처음으로 천황(天皇)을 쓰고 도읍을 옮겨 야마토 나라를 통치했다」고 쓰고 있다.

마한(馬韓)이란 본디 '말이' (宗)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삼한(三韓) 중 우두머리(長也) 나라이고, 북두칠성처럼 천추(天樞)가 되어

진왕(辰王) 노릇을 했던 셈이다. 천신(天神)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천군(天君)이 되고 천황(天皇)이 된다는 이치이다.

천(天)은 일본말로 덴(テン)이기도 하지만 ‘아메·아마(あま)’라고도 하고, 바다(海) 또한 ‘가이’(カイ)이지만 ‘우미’ ‘아마’와 같아서, 마한(馬韓)은 아마가미로 천신(天神)의 나라를 이르는 옛말이다.



▲사적으로 지정된 신종석

일본에서 한반도 계열 씨족의 신사(神社)에는 우즈천황(牛頭天王)을 모시거나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를 모시고 있는데, 우즈(牛頭)란 앞서 말한 마한(馬韓)의 뜻인 우두머리(宗神)란 말이고,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신라에서 온 소시모리(素尸茂利)에서 왔다고 하는 바, 이 소시모리는 소도(蘇塗)라는 마한(馬韓)의 신역(神域)에서 왔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삼국지(三國志)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쓴 책으로 이 책 동이전(東夷傳)에 마한(馬韓) 이야기가 나온다.

“진한은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마한(馬韓)은 그 서쪽에 있다. 이 지방 백성들은 벼를 심어 곡식으로 먹고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 입을 줄 안다.”

“경초(景初, 魏 237~239)년중에 명제(明帝)가 비밀히 대방(帶方)과 낙랑(樂郎) 태수를 보내 한(韓)의 여러 신지(臣知)들에게 인수를 주고 읍군(邑君)에게도 각각 인수를 더 내렸다.”

이 기록은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친위왜왕(親魏倭王) 히미코(卑彌乎)에게 준 인수와 같은 시기이다. 진서(晉書)의 마한(馬韓) 항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은 삼국지(三國志)에도 있다.

“그들은 활, 방패, 창을 잘 쓸 줄 안다. 그러나 비록 싸우고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먼저 굴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성질 탓인지 마한(馬韓) 사람들은 농사 짓고 귀신이나 섬기면서 말 타고 씹 잘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일본 땅으로 건너갔던 것 같다.

이곳에는 귀신을 섬겨 요술로 여러 사람을 현혹시켜 왕이 된 히미코(卑彌乎)란 여왕이 있었다.

여왕국에서 북쪽으로 특별히 큰 기관 하나를 두어 여러 나라를 감독한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 기관을 몹시 두려워하고 꺼린다. 그 밑에 이도국(伊都國)은 나라 안에 자사(刺史)를 두어 다스리게 한다.

히미코(卑彌乎)가 죽자 크게 무덤을 만들어 직경이 백여 보나 되게 한 다음 노비 백여명을 순장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딸 대여(臺與)가 13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

5. 왕인(王仁)은 백제(百濟) 사람인가

* 왕인(王仁)이 백제 사람으로 일본에 갔다는 기록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 역사책 『고사기』와 『일본서기』이다.

정말로 오진천황(應神天皇) 때 갔다면 당시 백제(百濟)의 서울은 한성(漢城) 광주(廣州)지방이었으므로, 백제 영역인 그곳 어디 선거에서 갔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 기록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기로 한다면 전라도까지도 근초고왕(近肖古王) 때인 371년 이전에 백제땅에 편입되었으므로 전남의 영암 지방에서 갈 수가 있다.

백제가 서울을 공주(公州)로 옮긴 것은 475년이고, 부여(扶餘)로 옮긴 것은 538년이지만, 이런 역사 사실을 깊이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왕인(王仁)이 일본에 갔다면 막연히 부여(扶餘) 근방이었을 것이므로 이곳에 왕인비(王仁碑)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왔던 것임은 위에서 얘기한바와 같다.

『일본서기』기록을 보면 오진(應神) 37년 2월 아지사주(阿知使主)와 도가사주(都加使主)를 중국의 오(吳)나라에 보내 4명의 공녀(工女)를 가져왔다고 했다. 오진(應神) 37년은 일본 기록대로 서기 306년의 일이라고 할 때, 이미 280년에 망해 없어진 오(吳)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이 되니, 이 기록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오진(應神) 41년(310) 2월에는 아지사주(阿知使主)가 오나라에서 왔다고 한 기록 또한 엉터리이다. 당시 중국에 오나라는 없었다. 진(晉)나라를 이어 5호(五胡) 16국(國)이 발흥하던 시기이다.

유라쿠(雄略) 14년(470) 1월 13일 오나라 사신들이 방직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기록 또한 거짓말이다. 당시 중국땅에는 송(宋)나라와 북위(北魏)나라가 있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왕인(王仁)이 백제(百濟)에서 왔다는 것은 『일본서기』를 쓸 당시의 백제란 전라도 지방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서남부 일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런 보기는 오진(應神) 16년(285~405) 백제의 궁월군(弓月君)이 120현의 백성을 끌고 갔다는 기록에도 나온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 궁월군(弓月君)이 중국 진시황 후손(『三代實錄』)이라고까지 주장하는가 하면, 진한(辰韓)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다(平野邦雄설).

왕인(王仁)은 궁월군(弓月君)이 인솔한 120 고을 사람들이 일본에 가던 해에 건너간 한반도 사람일 뿐, 실제 백제국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근래에 주장하는 마한계(馬韓系) 인물이었거나 가야(加耶)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백제(百濟)는 고이왕(古爾王) 50년(283) 이후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369)까지 별 전쟁 없이 지낸 평화로운 나라였다.

그러나 그 이후 아신왕(阿莘王) 7년(398)까지의 24년간 고구려와의 사이에 17회에 걸친 전쟁기록이 나온다.

이처럼 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했다면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상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물며 백제왕도와 먼 백성들, 특히 아직도 백제 중앙권력에 완전 흡수되지 않는 전라도 변방 사람들이나 가야 지방 사람들은 전쟁의 고통을 피해 기회의 나라 일본 땅을 찾아 보트피플이 되었음직하다.

고려대학교 교수 최재석(崔在錫)씨는 『백제의 대화(大和)비와 일본화과정』(1990)이란 책에서 궁월군(弓月君)이 인솔한 백제 이주민 자손은 긴메이왕기(欽明王期)의 진인(秦人)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동경대 교수 출신인 하니하라(埴原和郎, 1928~?)의 1987년 『人類志』의 발표 논문을 인용, 7세기 때 야마토(大和)지역(高市郡)의 인구 80~90%는 백제 이민자들이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하니하라(埴原)씨는 그의 논문에서 BC 3세기 죠훑기(繩文期) 말 인구를 75,800명으로 보고, 고분시대를 지나 역사 시대에 접어드는 7세기 때 일본 인구는 539만명으로 추계한다. 1천년 사이 이주민은 연간 3,024명씩 늘어 순수 이주민만 302만명, 그 후손이 216만명, 합하여 518만명이 됨으로 원주민대 이주민의 비율은 3.8% 대 96.2%라는 추론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오야마(小山修三)는 죠훑기 후기 일본 인구를 16만명으로 보고 인구증가율을 0.1%로 볼 경우, 서기 700년 때 인구의 원주민과 도래인 비율이 8.1% 대 91.9% 가량



▲인덕릉의 전경

이 된다는 계산치를 내 놓은 바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시 도래인이 일본사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데는 같다.

그러므로 한반도 혼란기에 일본에 건너간 이민자 중의 한사람이 왕인(王仁)일 뿐, 백제(百濟) 나라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전제하면 사실과 동 떨어질 수가 있다. 마한에서 갔으나 이미 백제에 편

입되었고, 『기기』의 편찬 당시에는 백제마저 멸망한 뒤였으니 백제와 마한을 구분하지 않고 백제로 몽똥그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건너간 왕인(王仁)은 개인이 아니라 이민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의 와니(和爾)나 진이(辰爾)계 자손들이 모두 왕인(王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